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2012년 4월

선교편지 제 4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사는, 지금까지 이곳에 오기 전 환경적으로 우월하게 살았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열악한 환경의 현지인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과 같은 삶으로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기본적인 공중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또는 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제 모습이 도리어 스워지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들을 인정하고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관습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모적인 일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면서도 다른 것 보다도 특히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많은 인내와 더불어 끝 없는 다짐으로 평정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현지화가 너무 잘 되어서인지, 지난번 현지인 목사님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이나 20분 정도가 아닌, 무려 3시간 30분이나 늦게 나타나는 뻘뻘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교육감, 주지사, 교장과 함께

그 날은 디고스 공립 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큰 공립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는 디고스 고등학교는,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 분교의 학생을 포함하여 약 만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초대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의 졸업식은 지역 학교만의 연례 행사로 조촐하게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작년에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따라 이곳의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실내 체육관이 디고스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 곳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주지사 (Governor), 의회 의원 (Congressman), 시장 (Mayor) 등의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을 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러한 큰 행사에 저희들까지도 이미 오래 전부터 참석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아 왔었습니다. 마침 저희도 몇몇 현지 목사님들을 디고스에서 만날 필요가 있어서, 같은 날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졸업식 행사를 고려하여 졸업식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마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졸업식이 낮 12시, 즉 점심 식사 시간과 겹치는 시각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1시간 30분이면 모든 순서를 잘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식장에서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행사가 끝난 이후 보다는 시작하기 전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졸업식 약 30분 전에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7월 단기 선교를 앞두고 관련 교회 및 학교와는 긴밀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디고스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지사와 교육감에게는 아직 직접적으로 협조를 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졸업식이 이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부터 모든 예상이 벗어 나기 시작합니다.

졸업식장에 미리 도착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졸업식이 시작되는 12시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졸업식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웬일인지 졸업식을 시작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를 초대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초조하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가 다 되어서야 마침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장을 시작하고, 그 즈음에 주지사를 비롯한 귀빈 (?)들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여유있게 7월 단기 선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산만한 분위기로 인하여 간단한 인사 외에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졸업식장 근처에서 목사님들과 만나기로 한 다음 약속을 위해서 저희들은 졸업식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끝나고, 귀빈들이 단상에 오르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독특하게도 장내 사회자를 통하여 초대된 귀빈들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 속에 한사람씩 단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행사를 치룬다는 생각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장내의 스피커를 통하여 저와 제 아내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식에 꼭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받았지만, 단상에 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약속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릴때 '한국인 선교사,.....'라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하여 한번 더 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상으로 올라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도 주지사 바로 옆에 앉도록 한 가운데 자리를 배치해 주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꼼짝없이 졸업식에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띠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마련한 존 감사와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바라본 졸업식

예정보다 거의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장내가 정돈이 되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만 1,700여명이 되고, 학부모를 포함한 장내 참석 인원이 4,000여명이 넘다 보니 엄숙하거나 차분한 분위기는 찾을 수 없고, 그야말로 자유 분방하고 즐거운 졸업식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 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단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엄청난 볼륨의 효과 음악과 함께 한명도 아닌 여섯명의 최우수 학생 (Valedictorian)들도 차례 차례 단상에 올라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학생 대표들의 졸업 연설 가운데 약속이나 한듯이 저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다. 돌이켜 보면, 내 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한 일들 뿐인데, 졸업식을 통해서 모두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 앉아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바라 보며, 이들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임 2:10)**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졸업식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대표들의 연설에 이어서 성적 우수자의 시상 시작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왜 이리 많은지, 저희를 포함해서 단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돌아 가면서 상장을 주고, 메달을 걸어 주는데,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졸업식 중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소재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주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부터 가장 궁금해 했던 의료 선교에 대한 협조에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꼭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대하 29:36)

졸업식이 장장 5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700여명에게 졸업장을 주어야 할 순서가 남아 있는데, 단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빠져 나가고 빈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졸업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단상에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방에서 준비된 식사를 하도록 안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틈을 통해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단상을 벗어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마침내 졸업식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된지 5시간만에, 약속 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늦게 현지 목사님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중간에 늦는다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어색한 웃음으로 괜찮다고는 하는데, 모두들 더위와 함께 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는 저와 약속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 6:15)

 이곳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부모들의 영향력에서 현저히 멀어짐과 동시에, 짧은 시간만에 지금까지 어릴적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애 어른'이 됩니다. 특히 해변교회에서 지난 3년여간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의 변화를 가까이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천진난만하고 기대를 많이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전혀 다른 모습의 미성년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성인과 같이 취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변화에 따라 그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받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바로 이 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춘기의 모습을 넘어서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뜻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하여 중도에 아주 쉽게 학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생활을 지나, 애가 애를 낳고, 경제력도 없는 가운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해변 교회 어린이들

특히 해변교회의 '미리엄'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의 3년여동안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했던 여자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찬양을 위한 '프로젝터' 사용을 잘 도와 준 아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미리엄'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리엄'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그 아이의 아버지께 학비를 보조해 줄터이니 학업을 계속시키라고 했으나 '미리엄'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되지 않아서 '미리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금년 초 16살의 나이에 애 엄마가 되었습니다.

4년여 전부터 해변교회를 통하여 교제를 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언니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어린 동생은 교회에 잘 나오지를 않고 특별한 절기에만 가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중에 여동생이

임신을 하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서 간호원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첫째 아이와 아버지가 다른 두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어린 나이에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남자가 해변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사회 생활을 시작한 여자 청년이 교회로 데리고 온 '벨기에'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 청년은 해변 교회의 찬양팀에서 성실하게 찬양을 감당하는 자매 이었는데,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외국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모두들 신분 변화의 최선으로 생각하는 외국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린 나이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의 나이가 본인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정서 상으로는 외국인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이 어린 자매는 많은 고민 끝에 다행스럽게도 (?)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을 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은 조심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조바심 가운데, 어찌 하든지 더 늦기 전에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이번 7월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팀은 디고스 지역에 위치한 네 곳의 고등학교, 두 곳의 교회와 마을, 그리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많은 장년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특별히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소한 이곳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나게 하셨지만, 이 모든 일들이 7월 예일교회 단기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실 일을 준비케 하신 과정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번 단기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갈 길을 잃어 버린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글을 쓰고 있는 마띠 학교 학생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애 2:19)

기도 요청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디고스 학원 선교 기관 설립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